

“본래적으로 실존하라” 현대 철학 거두의 메시지

불교로 읽는 古典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권순홍
군산대 철학과 교수

<존재와 시간>은 하이데거(M. Heidegger, 1889~1976)에게 철학적 명성과 권위를 더해준 대표적 저서이다. 그는 존재란 무엇인가를 근본물음으로 간직한 채 평생 존재론적 사유의 길을 걸어간 철학자이다. 그가 얼마나 큰 인물인지는 사람의 숨을 멎게 하는 존재물음과 죽을 때까지 고투한 그의 철학적 사유의 이력에서 가늠할 수 있다. 이 책을 이끈 물음도 존재 의미에 관한 물음이다. 천지간에 존재를 궁극해 하는 것은 인간, 곧 현존재밖에 없다. 여는 존재자와는 달리 현존재는 막연하게나마 존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에 존재물음을 제기한다. 존재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물음을 제기하는 현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곧 이끈대로 밝혀야 한다. 존재의미의 해명을 목적으로 해서 현존재의 존재를 본래성과 전체성의 실존론적 맥락에서 풀이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사실 이 책은 각기 세 편으로 구성된 제1부와 제2부로 기획되었으나,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분석', '현존재와 시간성' 등 제1부의 두 편으로 그치고 말았다. 현존재의 본래적·전체적 존재와 그 근원적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현존재의 시간성을 밝히는 것으로 일단락이 맺었다는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의도와는 달리 실존철학의 교과서가 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존재론적 존재론, 산도, 강도, 개도, 나무도, 집도 존재자가기에 존재한다. 현존재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여는 존재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그는 현존재의 존재를 따로 떼어내어서 특별히 실존(Existenz)이라고 부른다. 현존재는 여는 존재자와는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만을 따로 들여다보듯이, 그는 모든 존재자 가운데 현존재의 고유한 실존을 따로 꼼꼼히 들여다본다. <존재와 시간>은 현존재의 실존에 대한 그의 솔직한 현상학적 관찰 기록이다.

과연 하이데거는 남다른 존재성격을 자랑하는 현존재의 실존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 우선 그는 현존재의 실존에서 본질

(Essenz)을 끌어낸다. 본질 개념을 거슬러 가면, 플라톤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에 이른다. 본질은 형상이다. 형상은 설계도이다. 설계도는 설계도를 본떠서 만들어진 제품이 무엇인지를 규정한다. 다시 제품이 '무엇인지'는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곧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규정한다. 이렇게 본질은, 설계도가 그렇듯이 존재자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미리부터' 규정한다. 그러나 현존재에게는 그의 존재를 미리부터 규정하고 제한하는 본질이 없다. 현존재가 무엇인지를 미리 규정하는 본질이 없기에, 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그의 자유이다. 현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죽음의 가능성을 앞에 둔 그의 자유로운 결단에 달린 일이라는 말이다.

하이데거가 반(反)본질주의의 노선에서 현존재의 실존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실로 중요하다. 그가 붓다와 조우하는 것은 이러한 반본질주의의에서이기 때문이다. 바라문이 무엇인지를 놓고 다투던 두 바라문 학인에게 반본질주의의 가르침을 베풀(???)타의 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라문을 바라문으로 미리부터 규정하는 바라문의 태생적 본질은 없다. 도리어 그가 그때마다 '어떻게' 행위하는 자가 그가 '무엇인지'를 말한다. 가령 태생이 바라문일지라도, 그가 계행을 어기고 갈애를 즐기고 이 세상에 집착하는 한에서 바라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사람이 무엇인지는 그가 어떻게 행위하는가에 달린 일이지, 그 반대는 결코 아니다. 현존재의 실존이 본질이 없듯이, 사람에게는 본질이 없기 때문이다.

반본질주의의 노선에서 서는 한, 하이데거와 붓다는 다시 반실체론에서 교차한다. 사람에게 본질이 없다는 것은 그의 온갖 행위에 작용을 아무 때나 일으키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실체적 영혼이나 자아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서양 중세 스콜라철학에서는 사람의 지성적 영혼을 본질로 치부하지만, 애석하게도 사람에게 지성의 능력을 갖춘 실체적 영혼이나 자아가 없다.

"다만 인간의 '실체'는 영혼과 육체의 종합으로 본 정신이 아니고 실존일 따름이다"라는 하이데거의 완곡한 발언에서 지성적 영혼을 거부하는 반실체론이 깊숙이 울린다. 현존재가 실존의 '행위'임을 알리는 그의 진술이 사람을 5온의 '작용'으로 보는 붓다의 가르침과 서로 소통하고 공명하는 것은 이러한 반실체론의 맥락에서이다. 물론 사람만이 실체적 자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로 우주만법에 다 실체적 자아가 없다.

그것은 만법이 저마다 실체적 형상이나 본질을 갖춘 채 독립장군처럼 혼자서 사유하지 않고 빈 가슴 속을 들락날락하면서 서로 어우러진 채 상호관계에서 상호작용을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사진. 그는 '실존'인 인간 존재는 '무'로 돌아가는 존재이며, 그 존재 방식은 '불안'이라는 것이며, 이 불안에 의해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전체로서 나타나게 되는 결국 무매개(無媒介)로 전체로서 초월하게 되며, 일상성으로부터 탈각한다고 했다.

'존재란 무엇인가' 화두 던진 철학자 하이데거의 주요 저서 인간 실존구조 분석 '새 지평'

하이데거 주장한 현상학적 관찰 부처처럼 가감없이 존재 살펴

공유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가 현존재에 대한 반본질주의와 반실체론에서 붓다의 가르침과 공명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연기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으로까지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어디까지나 선천주의의 궤도를 걷기 때문이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에서 실체적 자아나 영혼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반본질주의와 반실체론의 노선을 달린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를 일상성에서 현상학적으로 관찰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방법을 쓴다. 현존재에 대한 현상학적 관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일상성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형이상학적 가감(加減) 없이 존재하

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현존재의 존재를 어떠한 전제나 선입견을 달지 않고 곧이곧대로 관찰한다는 것이야말로 현상학적 방법의 골수에 해당한다. 기존 이론의 권위나 전통의 편에 기대지 않고 현존재의 존재를 존재하는 그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상성에서 관찰해야 마땅하다. 그것도 오목렌즈나 볼록렌즈처럼 그의 일상적 존재를 쪼그라뜨리거나 부풀리지 않고 곧이곧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 일상적 존재에 얹힌 부패(覆蔽, Verdeckung)와 위장(Verstellung)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형이상학적 가감 없이 존재하는 그대로 현존재의 일상적 존재를 현상학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붓다는 <열반경>에서 열반을 놓고 가르치기를, "바라문여, 그는 욕망이, 성냄이, 어리석음이 남김없이 다한 것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열반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요컨대 3독의 남김 없는 소멸에 대한 경험에서 열반이 어떤 경지인지를 당장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르침의 골자이다.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붓다가 누구라도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은 열반을 3독의 소멸에서 어떠한 가감 없이 곧이곧대로 경험하고 그렇게 관찰한 까닭이다.

니까야 경전을 보면 알겠지만, 붓다가 와서 보라고 말하는 가르침이 없지 않다. 와서 보라는 것은, 무엇이든 가르침이든간에 가르침이 그 실상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부합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그 실상을 붓다가 아무런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한 까닭이다. 붓다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가감 없이 경험하고 관찰하고 드러내고 기술하는 현상학자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

반본질주의와 반실체론의 노선에서 현존재의 일상적 존재를 존재하는 그대로 현상학적으로 관찰하건대, 대관절 그의 존재가 어떠한 말인가? 단적으로 말해서, 현존재는 불안의 유정성에서 실존한다. 사실 현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기분에 젖는다는 것이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이다. 현존재의 경우 존재한다는 것과 기분에 젖는다는 것은 구조적 통일성에서 서로 통일된다. 그 구조적 통일성을 유정성(有情性, Befindlichkeit)이라고 한다.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존재를 줄곧 휘감는 유정성으로 꼽는 것은 불안이다. 그렇기에 불안은 현존재에게 우연히 닥쳤다가 이내 사라질 일시적 기분이 아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현존재의 실존을 속속들이 조율하는 근본 유정성이 바로 불안이다.

현존재는 언제나 불안의 기분에 젖어서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그의 현상실적 존재에 존재자적 원인이 없는 까닭이다. 신과 같은 존재자적 원인이 없으면 현존재가 세계로 던져진 채 실존한다는 것은 그에게 불안의 기분을 안긴다. 게다가 현존재는 실존하는 한에서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실존의 호적에 호주로 가입된 것은 바로 죽음의 가능성이다. 현존재가 실존한다는 것은 죽음의 가능성을 향해서 존재한다는 말이다. 아무 때나 죽음의 가능성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현존재는 실존하는 동안 내내 죽음의 가능성을 피할 길이 없다. 실로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게 마련이다. 그럴 바에야 죽음의 가능성으로 선구(先驅)하는 편이 낫다. 현존재로서 죽음의 가능성으로 선구하지 않고서는 달리 본래적으로 실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존재가 죽음의 가능성으로 달려가는 한에서 불안의 유정성에서 실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불안이 스산함(Unheimlichkeit)이나 안절부절못함(Un-zuhause)과 같은 고약한 기분이라는 점이다. '고함(Heimat)'을 떠난 방랑객이나 '집(Haus)'을 잃은 부랑자가 그렇듯이, 현존재는 스산

하고 안절부절못한 불안의 기분에 은근한 위협에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 그대로, 불안의 기분에 현존재에게 괴로움일 뿐이다. 현존재가 불안의 기분에 실존한다는 것은 그가 괴로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4성제의 맥락에 대입하면, 현존재의 실존에서 고성제의 진실이 빛난다. 사람의 5온이 찰나마다 변화의 파고를 무상하게 오르내리는 것도 행고(行苦)의 괴로움이지만, 태어나서 삶을 영위하는 동안 반드시 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도 고고(苦苦)의 괴로움이다. 현존재가 아무런 존재자적 원인이나 근거 없이 세계에서 실존한다는 것은 행고에 견줄 수 있다. 한편 현존재가 죽음으로의 선구에서 그때마다 본래성의 가능성을 놓고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은 고고에 견줄 수 있다. 이를테면 현존재가 죽음으로의 선구에서 본래적으로 실존하는 한, 행고이든지 고고이든지간에 괴로움을 면할 수가 없다. 알다시피 그 괴로움을 하이데거는 불안이라고 부를 뿐이다.

괴로움이 있으면,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 법이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할 방법이 있게 마련이다. 제거할 방법이 있으면, 그 원인을 말끔히 발거함으로써 마침내 괴로움에서 해방된 안온한 삶의 구경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고성제는 집성제, 도성제, 멸성제와 구조적으로 통일된다. 이른바 4성제이다. 안타깝게도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실존에서 고성제를 목격하지만, 고성제에서 나머지 4성제의 진실을 마저 독해하지는 못한다. 너그럽게 풀이하면, 현존재의 탈근거적 실존이나 죽음의 가능성은 집성제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성싶다. 갈애와 같은 번뇌가 빠져도, 그 둘이 현존재에게 불안의 괴로움을 안기는 불안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실존에서 도성제와 멸성제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현존재가 불안의 괴로움을 감내할망정 내 집처럼 편안하고 친숙한 세인의 일상적 공공성(公共性)을 떠나서 본래적으로 실존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존재와 시간>에서 전하는 교훈이기 때문이다. 본래성(Eigentlichkeit)은 현존재로서 불안의 괴로움을 등에 지지 않고서는 달릴 수 없는 고독한 실존의 길에 지나지 않는다. 도리어 일상적 공공성의 비본래성이 불안의 괴로움을 편암함의 기원으로 잠시나마 부패한다는 점에서 현존재에게는 위안이 된다. <존재와 시간>을 불교의 맥락에 놓고 읽을 때, 왜 현존재가 불안의 괴로움을 견디면서까지 본래성의 실존을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가를 묻고 깊이 숙고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서로 교차하던 하이데거의 길과 불교의 길이 다시 어디에서 어떻게 결별하는지가 명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최초의 티벳어 교재!

현재 티벳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일상 구어를 한국어 문법 체계에 기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

쉽게 배우는 현대 티벳어

- 1 티벳어 문자를 한국어 발음 체계 안에서 소리 낼 수 있도록 한국어 발음을 제시
- 2 티벳어 문자의 구성을 한눈에 제시함과 아울러 자음이 되는 기본자를 중심으로 결합되는 유두자, 침족자, 전절자, 후절자, 계절자의 5종류 글자들을 우리말 발음과 함께 설명
- 3 티벳어 문법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도식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

박은정 저/사북매남/컬러/262쪽/값23,000원

원전을 제대로 읽어야 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무문관

수행자와 중문학자가 함께 풀이한

불교

중문학 전공자인 안재철 교수의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문법 해설 및 풍부한 예문, 그리고 태고종 중앙강원 강주수암 스님의 선지를 꿰뚫는 강의가 어우러져 옛 선사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온전히 전해준다!

안재철·수암 공저/신국판/496쪽/값23,000원

초보자를 위한 한국선 입문서

간추린 한국선사상사

선의 전래부터 고려말까지 한국선이 어떤 흐름 속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는가를 주요 인물들의 생애와 저서, 사상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한반도에선이 전래되는 과정, 구산선문의 성립과 종파의 융성, 조계종의 성립과 전개, 임제종의 융성과 고려말 삼사三師의 선사상 등을 다루고 있다.

정명식 저/국판/214쪽/값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